

## 민선 5기 지방재정 진단

# 지방 재정은 아직도 2할 자치 차등보조율제 도입 시급하다

강운태 민주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의장



-광주·전남을 비롯한 상당수 자치단체가 재정난 심화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지난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2할, 3할 차지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원을 보면 조세 총액이 240조 원 중 79%가 국세, 21%가 지방세여서 '2할 차지'라고 할 만하다.

또 사무의 경우 4만3000여개의 사무 중 국가사무가 71%, 차지사무가 29%로 '3할 차지'에 불과하다.

특히, 재정의 경우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세제 개편 등으로 자자체의 자체 세입 증가는 미미한 반면 국고보조는 매칭에 따

-지방자치 문제는 지역 불균형과도 맞물려 있다.

▲ 지방자치 확대노력과 함께, 심화하고 있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에는 전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경제적 부의 70%가 몰려 있는 '수도권 공화국'이다. 이어서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해방 직후인 1949년부터 2011년까지의 인구 변화를 보면 수도권 인구는 498.9%가 증가했지만 호남권은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역간 인구이동은 일자리를 찾아서 기업체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기업체 입지와 이전

## 민주 단체장 104명과 함께 5할 차지 추진

를 부담과 사회복지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세출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오히려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 방안이 있다면.

▲ 지방소비세를 인상하고 국세를 적극적으로 지방세로 전환, 지방 세원을 늘려야 한다. 특히 1800여개 사업별로 지나치게 칸막이 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 지원방식을 바꿔 '분야별로 배분하는' 포괄보조금제도로 개선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차지단체 간 재정자립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도와 강원도 쪽으로 이전하고 있고, 최근엔 '충청권의 범수도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남부권(영·호남)이 대등하게 1대 1 구조로 발전하는 '남부권 경제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영남과 호남이 긴밀히 연대 협력해 나가야 한다.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처럼 수도권으로부터 먼 곳에 기업이 입지 할수록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은.

▲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5할 차지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은 '지방분권일괄법' 제정 후, 애초 2할 차지수준에서 사무는 5할 차지, 재원은 4할 차지 수준으로 발전했다.)

/ 출처기자 redplane@kwangju.co.kr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비용이 급증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 예산 가운데 80%는 중앙 정부가 쓰고 나머지 20%만 지방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이른바 '2할 차지'가 원인으로

로, 이 같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지방자치는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선 5기 후반기를 앞두고 박준영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강운태 민주통합당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재정 등 차지시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봤다.

## 뜻만평

- 김종우



미치겠군

박준영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 정부가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만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도 등 일선 지자체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지자체들은 지난해에 이미 올해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총선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가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안을 들고 나오면서 비롯됐다.

무상보육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5대 5의 비율로 재정을 부담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20%에 불과하다. 재정분야부터 지방분권을 실천해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진다. 단 지방간 발전의 격차를 감안해 재정을 분배해야 한다.

교육자치도 절실히 분야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정부에 맡겨야 한다.

전자는 농어촌 벽지학교가 많아보니 일괄적으로 통폐합을 시도할 경우 부작용이 생기기 쉽다. 고교생이라면 기숙사 학숙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 수도 있지만 어린 초등학생은 부모 곁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 그런데 학교 통폐합으로 갑자기 다니던 학교가 사라져 수km 거리를

## 농어촌학교 통폐합 지역 실정 맞게 조정을

가 갑자기 포퓰리즘 정책을 들고 나오니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는 지방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방재정을 고갈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16개 광역 시·도가 추경에 지방비 부담분을 편성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 문제의 책임은 1차로 국회에 있고 2차로 정부에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없나

▲ 16개 시·도가 새로 부담해야 할 지방비만 7000억 원 이상이다. 추가 부담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7·8월부터는 지방비 부족으로 무상보육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도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일한 방법은 우선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정부가 내년에 국비로 충당해 주는 것이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정부에 할 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

▲ 지방분권 문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떠나 8년간 전남도정을 이끌어온 3선 광역 단체장으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지방자치시대지만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분야가 너무 많다. 그 중에서 최우선으로 꼽고 싶은 것은 역시 재정분야다.

세금은 전 국민이 내는데 80%를 중앙정부가 쓰고 지방정부가 집행할 수 비율은

통학한다면 정서에도 악 영향을 미칠수 있다.

불필요한 권한은 지방에 이양해야 지역도 발전이 가능하다. 농업분야를 예로 들면 전략적인 식량문제는 정부가 맡아야 하지만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취업직후부터 친환경농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가공·유통을 강화하자 전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가 소득은 증가하면서도 부채는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다.

-여수엑스포가 벌써 종반을 지났다. 관람객 수가 예상치를 밟돌아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 관람객 수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실패한 엑스포라고 할 수는 없다. 엑스포를 통해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분야의 산업화를 이룩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보다 가치있는 일은 없다. 전남 입장에서도 남해안의 역할과 투자 잠재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

▲ 호남 대권주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차례 입장을 밝힌 만큼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호남주자는 안된다'는 '호남 패배주의'에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이 빠져들면 안된다는 점이다. 호남 패배주의는 수도권에서 만들어 낸 실체없는 허상일 뿐이다.

/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불면증 한방(韓方)으로 치료!

한의학에서는 불면의 원인을 크게 다섯가지로 나눈다.

## (1) 사려과다(思慮過多)

생각을 곤란하게 하여 비정(脾臟)과 심장(心臟)이 손상되어 피(血)를 소모시키는 경우이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부인의 신하나 오랫동안 병을 앓은 환자, 노인 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때는 풀이 않고 자주 깨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 잊어버린다. 또 입맛이 없거나 몸이 권태롭고 정신적으로도 쉽게 피곤해 한다.

주로 내성적인 사람에게 많다.

## (2) 음허화동(陰虛火動)

장기간 영양부족이 지속되거나 오랜 병, 여성호르몬의 부족, 치나 친 성교로 신장(腎臟)의 기능이 손상되어 상화가 위로 올리와 심장의 화를 자극하므로 정신이 안정되지 않아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이다.

이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으며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입이 마른다. 발바닥이 뜨겁거나 번열이 생기며 간혹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잠들기전까지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거나 잠을 깨는 횟수가 하루밤 중 5회이상이나 깨어있는 상태가 30분이상 되는 경우 또는 6시간이하이면서 잠을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려운 경우 등은 불면증을 의심하여야 한다.

불면증은 말그대로 여리가지 원인에 의해 수면이 박탈당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불면증은 '입면장애', '수면유지장애', '조기각성'으로 분류한다. 입면장애에는 잠들기까지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말하며 수면유지장애에는 잠을 깨는 횟수가 하루밤중에 5회 이상이거나 깨어있는 상태가 30분이상 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조기각성은 전체 수면이 6시간 이하이면서 잠을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한의학에서는 수면의 기전을 기의 운행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가 낮에는 인체의 밖을 순행하므로 잠이 오지 않고, 밤에는 기가 임체 안으로 들어감으로 잠을 자게 되는데 불면증은 이러한 정상 생리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것이다.

침을 말하면 수면유지장애에는 잠을 깨는 횟수가 하루밤중에 5회 이상이거나 깨어있는 상태가 30분이상 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조기각성은 전체 수면이 6시간 이하이면서 잠을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한의학에서는 수면의 기전을 기의 운행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가 낮에는 인체의 밖을 순행하므로 잠이 오지 않고, 밤에는

기가 임체 안으로 들어감으로 잠을 자게 되는데 불면증은 이러한 정상 생리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것이다.

기의 운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증상에 맞는 약물요법과 침구요법을 주로 활용한다.

한방 약물요법으로는 사려과다로 오는 경우는 귀비탕을, 음허화동으로 오는 경우는 청심연마탕이나 기미소요산을, 심경으로 오는 경우는 청심연마탕, 위증불화로 오는 경우는 항상양탕을 사용한다.

한방 약물요법으로는 사려과다로 오는 경우는 귀비탕을, 음허화동으로 오는 경우는 청심연마탕이나 기미소요산을, 심경으로 오는 경우는 청심연마탕, 위증불화로 오는 경우는 항상양탕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처방이다.

일반적인 통용방(通用方)으로는 산조인탕을 사용한다.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었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치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침구과

### • 핫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기분抑郁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1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화정동 주택은행추선회관

◀ 송정리 ▶ 둘고개

경희한의원

중앙병원

▶ 경희한의원

침·뜸·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